

2020년 교회 표어

오직 예수, 오직 복음,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

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솟아나는 원천

| 사도신경

| 찬 송 502장

| 기 도

| 성경본문 빌립보서 4장 10절 ~ 13절

- 10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
 씩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쁨이 없었느니라**
- 11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
 하기를 배웠노니**
- 12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
 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**
- 1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**

| 삶 나누기

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변화와 혼란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
기쁘고 감사한 일들을 돌이켜 보며 서로의 경험을 이야기해 봅시다.

말씀나누기

우리들은 일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이 원하는대로 전개되지 않을 수 있고
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현실에 처하면서 우울하고 한숨쉬며 살게 될 때가
있습니다. 특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지금 온인류
가 겪고 있는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 처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전개되
지 않는 인생 속에서 답답하고 한숨쉬며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.

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옥고를 치루면서 빌립보교인들에게 서신
을 보내는 사도바울의 삶도 이와 같았습니다.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
고 온힘 다해 복음을 전하던 사도바울이 지금 처한 상황은 햇빛이 들어오
지 않는 캄캄한 동굴 같은 곳, 사방에 쥐가 끓고 곰팡이 냄새가 가득하며
비인간적이고 반인권적인 일이 자행되어도 호소할 길이 없던 감옥에 갇혀
있는 것입니다. 그런데 옥중서신인 빌립보서의 대주제가 <기쁨>입니다.

풍성해도 영혼이 타락하지 않고 비천한 상황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
채워가며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솟아나게 하는 원천은 무엇일까요?

**첫째,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상황이나 환경적 산물에 가치를 두지
않을 때 솟아납니다.**

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중요하게 여
깁니다. 생존자체보다 아름답고 위대하게 사는 길을 구합니다. 자신의 자리
와 물질과 같은 것에서 자유합니다. 있고 없음에 연연하지 않고 자족합니다.
그러므로, 비록 감옥살이를 하고 있어도 기쁨이 충만합니다. 스테반처럼 돌
맹이가 날라오는 위기의 상황에서도 평안히 기쁨으로 하늘의 영광을 바라
볼 수 있습니다.

**둘째,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바로 지금, 여기를 향유하며 살아가는
동안 솟아납니다.**

사도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왜 감옥에 갇히게 하셨는지 그리고 언제 감옥에서 벗어날까 하며 그 자리를 불평하고 원망하며 소일하기 보다 그 자리를 궁전처럼 즐기며 누립니다. 감옥 속에서는 누릴 것이 전혀 없어 보이지만 그는 그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합니다. 사도바울은 전도여행 중에 마케도냐에서 사람이 손짓하는 환상을 보며 소명을 받아 빌립 보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. 그런데 거기서 귀신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 내준 것 때문에 여종이 점을 치는 것으로 이윤을 얻던 이들의 고발로 바울과 실라는 옥고를 치룹니다.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바로 지금 여기를 향유합니다. 한밤 중에 일어나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.(행16) 그 곳은 감옥이기 전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곳이며 하나님과 함께 하며 하나님 자신을 기뻐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.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도바울의 삶의 방식입니다. 바로 지금, 여기에서 내게 부어주시는 한 가지 은혜에 집중합니다. 그것을 맘껏 누립니다. 고통과 두려움의 상황을 은혜로 채우며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만들어 갑니다.

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.

셋째, 내가 내 삶을 통제하려는 욕망을 내려놓을 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솟아납니다.

우리 인생이 우리가 정하고 계획한대로 통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경험을 통해 모두가 동의하는 바일 것입니다. 하나님은 사람을 이끄시면서 그 사람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십니다. 요셉 모세 다윗은 말할 것도 없고 베드로와 사도바울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는 이들이 예측할 수 없는 길로 인도하실 때가 많습니다.

그러므로, 내가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불확실하고 애매모호한 상황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.

넷째, 생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인생임을 믿으며 기뻐하는 동안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솟아납니다.

우리는 창조신앙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셔서 이 세상과 자신을 가로막는 악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다스려진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지

금의 악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.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라 사랑과 정의를 이뤄가는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. 또한 예수께서 부활하시어 다스리신다는 부활신앙을 따라 살아갑니다.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.(고후5:17)라는 말씀과 같이 내면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갑니다.

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믿음으로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합니다. 고난이 닥쳐와도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쓰이는 것을 믿으며 감사합니다. 이 믿음이 기쁨의 능력이요 바울의 능력의 원천이 되며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솟아나는 근원입니다. 그러므로 우리도 “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”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.

성도여러분, 코로나 전염병 속에서도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내게 주신 삶을 향유하며 기쁨이 충만한 삶을 누리십시오. 생이 통제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거나 불안해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십시오.

말씀 나눔

1. 이번 공과에서 능력있는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신앙의 마음가짐 네 가지에 대해 요약해 보시고, 어느 것이 지금 자신의 상황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지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.
2. 이번 공과 말씀이 지금 내 상황에 대해 무엇이라고 위로 격려 그리고 도전하고 있습니까?
그리고 나는 말씀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싶은가요?
3. 오늘 말씀에서 내 마음에 부딪친 부분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 것인가를 나눈 후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.